《배움이란 – 사람, 그 사이의 울림》

• 서문 – 교실에서 날아온 편지

“선생님! 이거 진짜 그런 건가요?”

질문은 짧았지만, 느낌은 강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닐 텐데—그 눈빛, 그 말투.

그건 설명을 바라는 질문이 아니라

내 말을 확인하러 온 질문이었지요.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지금은 내가 배우고 있는 중이구나.”

가르치기만 하던 내가

정확히 내 방식대로

그 아이에게서 배움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질문은 때로 칼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상대를 겨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질문.

그런 질문 앞에선

대답이 아니라

내가 먼저 멈춰 서게 됩니다.

비슷한 기억이 하나 더 떠오릅니다.

발령 초기,

교감 선생님의 권유로 프로젝트 공모를 맡게 되었습니다.

기획도, 영상도 모두 처음이었지만

감은 있었습니다.

다만 감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내게는

뜻이 잘 맞는 후배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구상을 말하면

그 친구는 국회도서관까지 뒤져 자료를 모았고,

우리는 함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내가 살을 붙였습니다.

결과는 좋았습니다.

1300만 원 규모의 프로젝트 운영비를 확보했고,

무엇보다 함께 만든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때처럼,

지금도 누군가와 함께 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움은 가르침보다 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 1장. 배움은 모두 다르다

배움에는 공식이 없다.

누군가는 듣고 배우고,

누군가는 말하면서 배우고,

또 누군가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 순간에도

뭔가를 배워간다.

나는 교사 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배움의 방식을 목격해왔다.

그 중 어떤 방식은 감탄을 자아냈고,

어떤 방식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한 아이는

말을 곱씹는 습관이 있었다.

수업 중 나눈 대화가 끝나고 며칠 뒤,

“선생님, 그때 하신 말 말인데요…”

하고 다시 말을 꺼낸다.

한 아이는

침묵으로 말하는 능력이 있었다.

입을 닫고 있지만,

표정이나 눈빛에서

‘그 말은 아직 내 안에서 안 끝났다’는 것이 전해졌다.

또 어떤 아이는

몸을 움직이며 배우는 타입이었다.

도무지 앉아 있질 못했지만,

신기하게도

몸으로 부딪쳐 본 건 절대 잊지 않았다.

이처럼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지를 살피는 일은

교사로서 나에게 필수적인 공부였다.

왜냐하면 배움은, 항상 나로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라

타인의 방식 속에서 스며들어오는 것이기도 했으니까.

어느 날, 동료 교사 한 분이

실수한 자신을 웃으며 자조했다.

“또 배웠네, 내가 이걸 왜 또 까먹었지.”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찔렀다.

“실패를 웃으며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그 실패를 자기 것으로 만든 사람이란 뜻이니까.

그렇게, 나는 타인의 배움에서 배웠다.

그러다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배워왔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통해,

어떻게 나의 배움을 알아차리게 되었을까?

나는 남의 배움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말의 톤, 질문의 간격,

고개를 끄덕이는 타이밍까지—

그 작은 리듬 안에서

‘아, 저 친구는 지금 배우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 그 질문을 던졌던 적은 드물었다.

“나는… 어떻게 배우는가?”

처음에는 말이었다.

배우는 것보다 말하는 게 더 빨랐고,

누가 묻기 전에 먼저 설명하는 게

배움이라고 착각한 시절도 있었다.

그다음은 실수였다.

몇 번이고 부딪히고, 어긋나고,

그러다 스스로 고개를 숙이며,

“이건 다시 해야겠네…” 했던 순간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묻는 사람’이 되었다.

더 이상 정답을 쥐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끝을 흐리며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이 내 안에 오래 머무르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정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생각을 다시 듣기 위해서였다.

그게 나의 방식이었다.

내 안에서 맴도는 말들을,

누군가의 귀를 통해 되돌려 듣는 것.

그렇게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사람인지

조금은 알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배움은 모두 다르다는 말이

결국 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문장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모두가 다르게 배우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같이 배우자’고 말할 수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했다.

“나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당신은 어떤가요?”

그 질문은 언젠가 다온에게도 했던 적이 있다.

“너는 어떻게 배우는 것 같니?”

“몰라, 그냥… 반복해서 하다 보면 돼.”

단순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내가 잊고 있던 배움의 또 다른 방식이 담겨 있었다.

되풀이.

되새김.

어쩌면 배움은

‘반복을 통해 자신만의 리듬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 말을 곱씹으며

나는 또 하나의 배움으로 나아간다.

�� 2장. 내 안의 배움은 침묵에서 시작되었다

말보다 먼저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수업이 끝난 교실,

아이들이 나간 뒤의 적막,

혼자 남은 복도 끝 창가에서 나는

가만히 생각에 잠기곤 했다.

그건 생각이라기보다는 느낌이었고,

느낌이라기보다는 울림에 가까웠다.

“무언가 배웠는데,

아직 말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상태.”

배움은 종종 그런 식으로 다가왔다.

말이 없을 때,

말을 할 수 없을 때,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좋을 때.

누가 묻지 않아도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 수업… 제대로 했나?”

“아이의 그 표정… 내가 놓친 건 없었나?”

그 질문들은 소리 없이 다가왔고,

내 안에서 오래 머물렀다.

바로 그 침묵의 시간들이

내 배움의 본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책이 교과서겠지만,

나에게는 그 침묵이 교과서였다.

그 안에서 나는 실수를 복기하고,

성장을 감각하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했다.

내가 배운다는 건,

결국 혼자 있을 때 가장 선명했다.

�� 다음 흐름은

• �� “나와의 대화”

• ��‍♂️ “기도, 명상, 침묵의 기록”

• 또는 �� “의식 없는 학습과 의식 있는 앎”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툭—

어디로 가실지 정하시면 바로 따라갑니다.

하하하, 마에스트로 그 한마디에

배움이란 단어가 갑자기 춤을 추는 느낌입니다.

그럼 꼴리는 대로,

침묵에서 피어난 자기 대화 쪽으로 쓱— 미끄러져 가겠습니다.

어느 날은

기도처럼 속으로 중얼거렸다.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입 안에서 웅얼거렸다.

대부분은

기록도 안 되고, 누가 듣지도 않았지만

그 말들이 내게 가장 큰 배움을 주었다.

“하나님, 내가 뭘 놓친 걸까요.”

“내가 더 조심해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까.”

“그 표정은… 상처였을까, 오해였을까.”

그 누구에게도 묻지 못한 질문을

나는 침묵 속의 존재에게 던졌고,

어느 날은 답이 오고,

어느 날은 오지 않았다.

그런데도 묘하게,

답이 없다고 해서 헛된 질문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무응답이야말로 나를 더 조심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배웠다.

말 없는 순간이 가르칠 때가 많다는 걸.

마치 어릴 적,

엄마가 혼내지 않고도

그저 조용히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스스로 반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배움이란, 누군가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말하게 되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것.

어느 날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곤 했다.

“내가 오늘 또 설명을 너무 많이 했구나.”

“듣는 척은 했지만, 애들은 이미 멀리 가 있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나는

수업이 끝난 교실에 혼자 앉아

책상 위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말 대신 손을, 눈 대신 책상을,

소리 대신 공기를 바라보며

하루를 다시 복기했다.

누가 그러더라.

“반성은 행동을 멈추게 하지만,

성찰은 행동을 정제하게 만든다.”

나는 그 문장을

반성도 성찰도 하지 않던 시절의 나에게 들려주고 싶었다.

아이들이 자고,

세상이 조용해질 때

나는 조용히 오늘의 말을 반추했다.

‘아까 그 말, 꼭 그렇게 말했어야 했나.’

‘다른 방식이 있었다면 뭐였을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듣는 입장이었다면…’

이런 질문들은

어느 강의에도 없고,

어떤 책에도 없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내가 나에게 주는 가장 값진 수업이었다.

배움은 그렇게,

누구도 평가하지 않는 순간에

나 혼자 스스로를 쳐다보는 그 짧은 틈에서

아주 작게, 아주 깊게 일어났다.

�� 3장. 나는 교사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선생님답지 않으시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다.

그 말이 칭찬인지 실망인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는

내가 정말 ‘선생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순간적으로 헷갈렸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교사답다’는 표현을 쓴다.

조심스럽고, 늘 차분하며,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는 태도.

하지만 나는

내가 ‘선생님답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에

오히려 더 사람다웠고,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가장 배우는 순간이었다.

학생 앞에서 말문이 막혔을 때,

회의 시간에 말 실수를 했을 때,

나보다 어린 교사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역할의 역전이

진짜 배움을 일으키는 순간이었다.

나는 교사이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이었고,

때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으며,

무엇보다 배움 앞에서 서성이는 사람이었다.

교탁 뒤에 숨어 있으면

그걸 잊을 수 있다.

하지만 교탁에서 내려오면

다시 보인다.

나는, 여전히 배우고 있었다.

나는 답게 살고 싶어서

아들의 이름을 다움이라 지었다.

사람다움, 삶다움,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가

‘너답다’는 말을 듣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이에게 ‘답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어쩐지 그게 기뻤다.

그 말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정답 너머에 있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점점,

‘답게 사는 것’이

틀 안에 갇히는 게 아니라

틀 밖을 바라보는 일임을 배워가고 있다.

답답한 기준 속에서

답지 않은 나를 발견하고,

그 틈에서 진짜 나다움을 마주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나는,

누군가가 내게

“선생님답지 않으시네요”라고 하면

이렇게 웃으며 대답한다.

“네,

요즘은 좀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요.”

�� 4장. 배움은 삶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처음엔 그랬다.

배운다는 건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믿었다.

그래서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강연을 들을 때마다

심지어 아이와 대화 하나 나눌 때조차

“그래서, 나는 이걸로 뭐가 달라졌나?”를

자꾸 따져 묻곤 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배움이 늘 삶을 바꾸는 건 아니라는 걸.

어떤 배움은 삶을 바꾸지 않아도,

충분히 내 곁에 머물 자격이 있다는 걸.

마치

오래된 편지처럼,

당장은 꺼내 보지 않아도

언젠가 다시 펼쳐볼지도 모르는 이야기처럼.

그런 배움은

말없이 내 마음 어딘가에 저장된다.

그리고 불쑥,

어떤 순간에 나를 지탱해준다.

어느 날은

그냥 누군가의 말 한 줄이,

어느 날은

누군가의 침묵이,

나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게’ 해줬다.

나는 이제,

배움이 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그 조용한 강박을 놓아보려 한다.

대신,

그저 머물게 해주는 말 한 줄,

당장은 이해 안 돼도 자리를 지켜주는 배움 하나면

그걸로 충분하다 믿는다.

�� 5장.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 배움

요즘은

기억나는 게 점점 줄어든다.

책도 예전만큼 오래 남지 않고,

이야기도 듣고 나면

금세 다른 생각에 덮이곤 한다.

예전엔 이게 걱정이었다.

“내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잊어버리면

이건 배운 게 아닌 건가?”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다.

기억되지 않아도 괜찮은 배움이 있다는 것.

배움은 꼭 의식 위에 남는 정보만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스며드는 감각일 수도 있다는 것.

어떤 말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 말이 있던 자리의 온도는

이상하게 오래 남는다.

어떤 눈빛은

무슨 상황이었는지는 다 잊었는데

그 눈빛을 봤던 내 감정은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그걸

배움의 침전물이라고 부른다.

겉으론 사라진 것 같지만,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내린 결정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것들.

그래서 지금은

굳이 모든 걸 외우려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그때 배우려 했다는 것.

그걸로 충분하다.

�� 6장. 다온아, 이건 그냥 기억 안 나도 되는 이야기야

다온아,

사실은 이 책을 쓰면서

너 생각을 많이 했단다.

처음엔 안 그랬어.

그냥 내 기억, 내 배움, 내 수업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냥 교사 이야기로 끝날 줄 알았거든.

근데 쓰다 보니까,

내가 배운 것 중 가장 오래 남은 건

너와 나눈 말,

너와 나눈 침묵이더라.

너 어릴 때,

내가 뭔가 알려주려고 하면

넌 꼭 “그건 왜?” 하고 되물었지.

그게 짜증나던 날도 있었고,

오히려 네 질문이

나보다 더 어른스러워 보여서

내가 말을 줄이게 되던 날도 있었어.

그땐 몰랐는데 지금은 안다.

그 질문들이 나를 교사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배우는 존재로 데려갔다는 걸.

이제는 너도 자라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 책은

너에게 가르치려고 쓰는 책이 아니야.

그냥,

내가 어떻게 배웠는지,

그 이야기 하나라도

네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스며들면 좋겠어서.

기억 안 나도 돼.

그냥 네가 살아갈 때

문득 떠오르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배움은 결국

사람 사이의 말,

그리고 말 사이의 침묵에서 일어나는 일.

나는 그걸 너를 통해,

그리고 나 자신을 통해 배웠단다.

�� 에필로그. 책은 끝나지만 배움은 어디에나

이 책을 쓰며,

나는 여러 번 멈췄고,

여러 번 고개를 들었다.

기억이 흐릿해질 때도 있었고,

글이 이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순간들조차 배움이었다.

배움은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려는 마음을 놓지 않는 것이라는 걸

조금은 알게 되었다.

말로 다 설명되지 않아도,

다 적지 못한 기억이 있어도,

이 책이 담고자 한 건 결국 하나였다.

사람은 사람을 통해 배운다.

그리고

그 배움은 늘 말과 침묵 사이에 놓여 있다.

읽어줘서 고맙다.

같이 있어줘서 고맙다.

그리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